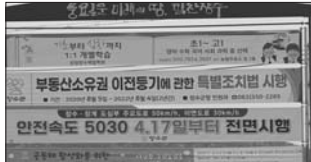


# '안전속도 5030' 전면 시행

### 장수군, 17일부터 도심부 주요도로 시속 50km 이면도로·어린이보호구역 시속 30km 속도 제한

장수군이 오는 17일부터 시행되는 '안전속도 5030' 정책에 따라 장수읍과 장계면 등 주요도로 및 이면도로에서 속도가 제한된다.

안전속도 5030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교통사고를 줄이고 교통약자 보호와 보행자 안전을 위해 도심부 주요도로는 시속 50km, 주택가 등 이면도로와 어린이보호구역은 시속 30km로 속도를 제한하는 정책이다. 장수군은 장수경찰서와 협업을 통해 장수군 장수읍, 장계면 등 관내 도심지의 주요도로 및 이면도로 20개 구간에 제한속도를 지정했다.



장수군이 오는 17일부터 시행되는 '안전속도 5030' 정책에 따라 장수읍과 장계면 등 주요도로 및 이면도로에서 속도가 제한된다.

군은 대상구간 노면에 제한속도 표시를 완료할 예정이며 보행자 사고예방을 위한 횡단보도와 교통안전 표지

판 등을 설치해 사고예방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또 안전속도 5030 정책의 속도제한 내용을 인지하지 못한 군민들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홈페이지, 현수막 등을 통한 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칠 예정이다.

아울러 주정차 금지구역에 대한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합동단속을 펼치는 등 교통법규 준수는 물론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해 최대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이홍대 건설교통과장은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의 안전을 위해 시행하는 것으로 안전속도 5030 정책이 초기에 정착되고 준수될 수 있도록 운전자의 인식변화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 김두호 농촌진흥청 차장, 무주 과수 냉해 피해 농가 방문

### 저온·서리피해 예방시설 점검·피해 예방 기술지도 실시

4월 기습 한파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김두호 농촌진흥청 차장 등 관계자들이 15일 무주군 과수 현장을 방문하고 냉해피해 상태를 살펴봤다.

이날 현장 방문은 김두호 농촌진흥청 차장을 비롯해 박경숙 전북농업기술원장, 송금현 부군수 등이 미세살수 점검 및 냉해 피해 입은 농가들을 찾아 현장 점검을 펼쳤다.

김 차장은 "저온피해 예방시설 미세 살수장치, 방상판 등 현장점검과 서리

피해 예방 기술지도도 실시했다. 또한 예방시설이 없는 농가는 과수원 바다의 잡초 또는 덮개 등을 제거하고, 과수원 내부로 찬 공기가 들어오는 곳에는 울타리를 설치해 피해를 줄이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만약 저온피해를 봤다면 인공수분을 실시해 결실률을 높여야 한다"며 "열매 숙는 시기를 늦추고, 열매 달림 여부를 확인한 뒤 열매숙기를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농진청 점검반은 꽃이 말라 죽는 등 저온피해가 심할 경우에는 늦게 피는 꽃에도 열매가 달릴 수 있도록 조치하고, 나무 세력을 안정시킬 수 있도록 질소질 비료량을 줄여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무주군은 농가 저온피해 최소화를 위해 영농현장 지도를 한층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3년간 봄철 냉해피해가 지속 발생했으며 올해 현재는 사과·배·복숭아 개화기로 저온에 가장 민감한 시기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 진안군, 노후 슬레이트 철거지원

진안군은 15일 노후화된 석면 지붕 슬레이트를 걷어내기 위해 총사업비 28억원을 투입해 '2021년도 노후 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올해 철거물량은 주택 700동, 비주택 45동, 지붕개량 75동으로 전북도 14개 시·군 중 최대물량으로 추진한다.

총 사업비는 28억원이고, 이 중 14억원은 국비이며 여기에 군비 14억원을 추가 투입했다. 특히 국비 확보액은 작년도 확보액인 4억원에 비해 4배 가량 증가한 금액이다.

4월 14일 기준 신청자는 1차 추진에 344명, 2차 추진에 64명으로 총 408명이 신청해 배정된 국비물량의 54%가 신청된 상황이며, 전체물량 소진 시까지 읍·면사무소에서 추가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 전춘성 진안군수,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방문

#### 접종 추진단 안전 접종 당부·119 구급대 등 관계자 격려

전춘성 진안군수는 15일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위치: 진동문화전수관)를 방문하여 백신 접종의 최전선에서 고생하는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진안군 코로나19 예방접종 센터는 15일부터 75세 이상 어르신 등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을 시작했으며, 백신 접종 첫날에는 안전면 75세 이상 주민 및 노인시설 종사자·임소자 등 330여명의 접종이 이뤄졌다.

전 군수는 현장을 방문하여 의사 3명, 간호사 3명, 현장요원 등으로 이뤄진 접종 추진단에게 신속하고 안전한 접종을 당부하며 보안을 위해 근무하는 경찰, 군부대 및 응급환자 이송에 애쓰는 119 구급대 등을 응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전춘성 군수는 "어르신들이 이동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전세 버스를 임차해 운영하고 있으니 사전 동의하신 분들은 꼭 접종에 참여해주셔서 집단 면역이 형성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기 바란다"며 "전 군민 백신 접종이 끝날 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군민이 안심하고 접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군은 이번 예방접종센터 운영 기간 동안 접종관련 콜센터(063-430-8018~9)를 운영하며 접종 관련 문의 및 접종 전 상담, 이상 반응 신고를 받아 안전한 접종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진안군이 15일 군청 상황실에서 진안군의회 의원 및 실과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무진장축협의 정관개정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 "무진장축협 정관개정 철회를"

### 진안군, 긴급 성명 발표

진안군이 15일 군청 상황실에서 진안군의회 의원 및 실과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무진장축협의 정관개정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전춘성 군수는 이날 긴급 성명을 통해 "법적 근거 없는 부적절한 정관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무진장축협의 부당함을 지적하며 철회하지 않을 경우 축산인과 함께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 군수는 "진안무진장축협은 지난 2010년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는 장수축협을 흡수해 건설한 조합으로 성장시켜 놓았다"며 "합병 당시 계약을 파기하고 조합 분열을 조장하는 정관개정을 단정 명백히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무진장축협은 2001년 진안축협과 무주축협이 합병하고 2008년 장수축협을 흡수합병하면서 대의원을 따로 정해 농림부(현 농식품부)로

부터 정관의 특별인가를 받아 지금에 이르고 있다"며 "합병 당시 계약서의 유효성을 현재까지 인정한다는 농식품부의 유권해석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조합원 투표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

전 군수는 또 "지난해 11월 27일 대의원의회의에 대의원 수를 조정하는 안건을 상정했다가 부결되었는데도 재차 서면결의라는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축산농가와 진안군민들을 무시한 채 정당한 절차와 방법을 거치지 않는 서면결의는 인정받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어 진안군의회 박관순 의원은 "더 이상의 부적절한 정관변경 시도를 중단하라"며 "그럼에도 무진장축협이 편법 정관개정을 강행한다면 진안군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진안지역 모든 조합원과 진안군민은 결코 좌시하지 않고 강력히 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 무주군의회, 군정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무주군의회(의장 박찬주)가 제283회 임시회에서 군정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을 하며 상정안건을 검토했다.

무주군의회는 지난 14일 무주아일랜드 생태테마파크 조성사업 현장, 무주생태모험공원 조성사업 현장, 무주반디나래 지원센터 조성사업 현장, 무주군-삼거리 새마을회 임야교환 대상지 등을 방문했다. 의원들은 이곳에서 무주군 관계자로부터 사업 추진현황을 보고받고 쟁점사항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무주군의회는 지난해부터 회의기간 중 사업목적과 효과, 방법 등에 의문이 생긴 사업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하고자 현장방문을 적극 시작했다. 구체적으로 위치와 지형, 예상 사업도 등을 살펴 의결 전에 충분한 정보를 얻고자 하는 것이다. 무주군의회는 지난해 말 열린 정례회에서 진행한 현

장방문이 올바른 의사결정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에 박찬주 의장은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을 공식일정으로 확정했다.

무주아일랜드 생태테마파크 예정지를 방문한 의원들은 이곳에서 최근 쟁점이 된 예산 조정 사항을 비롯해 조경 디자인, 침수 대책 등을 질의했다. 무주반디나래 지원센터 조성사업 현장에서는 입지여건을 비롯해 필요한 시설 등에 대해 질의했다. 적상면 상가리 임야 교환 예정부지에서는 행정 제반절차 준수여부를 비롯해 주민의견에 대해 논의했다. 의원들은 현장방문과 삼일위원회 질의응답을 하고 공유재산 관리계획 등 사업타당성을 다시 검토해 안전상정과 의결에 반영할 예정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 지역 소식통

#### 무주군, 농식품가공창업 심화반 교육 진행

무주군은 2021년 농식품가공창업 심화반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농식품가공창업 교육은 농산물 가공 창업에 필요한 교육을 단계별로 진행, 농업인들의 역량을 강화시킨다는 목적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교육은 지난 3월 기초반 교육을 수료생 30명을 대상으로 농산물종합가공센터에서 5월 20일까지 총 6회(매주 목요일 13:30~17:30)에 걸쳐 진행한다. 군은 심화반 강사로 내추럴초이스(주)와 식품위생안전정보원 관계자를 초빙했으며 수강생들과 함께 습식(과채주스, 잼)·건식(분말) 가공 운영 기술 및 작업장 안전 및 위생 교육, 가공제품 생산 제조과정을 실습한다. /무주=전문선 기자

#### 무주군보건의료원, 피부과 전문 비급여 진료 시행

깨끗하고 피부를 꾸꾸는 현대인들에게 피부에 자리 잡은 '점'은 여간 신경이 가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특히 얼굴에 생긴 '점'은 깨끗한 얼굴 피부를 방해하는 가장 큰 요인 중의 하나로 꼽힌다. 점과 검버섯의 경우 화장이나 피부미용으로도 쉽게 가려지지 않으며 개수가 늘어거나 크기가 커질 수도 있다.

무주군보건의료원에 따르면 피부에 있는 점과 검버섯으로 고민을 하고 있는 무주군민들을 위해 지난 12월부터 피부과 전문 비급여 진료를 시행으로 원거리 의원을 찾아야 했던 군민들의 불편이 해소됐다.

이로써 인근 피부과 비급여 수가 보다 낮은 수가 적용으로 무주군민의 피부과 시술의 접근성이 향상되고 적기 치료를 통한 군민 건강증진 향상에 크게 기여하게 됐다.

점과 검버섯, 쥐뿔 제거 비용은 1개 5,000원, 사마귀 1개 2만 원, IPL 시술은 1회 5만 원을 책정, 원거리에 위치한 의료기관보다 시술 가격이 값싸다. 단 개수와 크기, 상태에 따라 수가 조정이 이뤄질 수 있다고 전했다. 사전예약 없이 당일 내원 환자 순으로 1일 10명 내외 진료를 담당한다.

/무주=전문선 기자

# 아직도 망설이십니까?

전주매일 금연캠페인

